



FAIR TRADE

[공정거래] 담합 과징금 20배 상향·광고 제재 확대...공정거래 규제 전면 강화 신호

벤츠 배터리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받아...제품 사양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벤츠 전기차 배터리 광고 제재를 계기로 제품 사양 광고의 공정거래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 정보의 왜곡이나 누락도 기만적 광고'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닌 법적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는 성능과 부품 정보를 강조하는 마케팅이 필수적인 만큼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마케팅 전략과 표시광고 컴플라이언스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담합 과징금 최대 20배 상향, 공정거래 규제 강화에 따른 관리 체계 재점검 필요

담합 과징금이 최대 20배 상향되는 등 공정거래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며 과징금 확대뿐 아니라 신고 포상금 강화, 반복 위반 시 구조적 제재까지 논의되면서 규제 강도는 한층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담합 리스크는 행정 제재를 넘어 기업 재무와 경영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점검할 시점입니다.

협력업체 기술 탈취 조사 확대...대기업 하도급 리스크의 변화

협력업체 기술자료 관리 전 과정이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며 기술탈취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자료 요구 단계의 절차 위반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거래 관행이 그대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료 활용 범위나 내부 공유 과정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업의 관리 부담이 확대되고 있기에 기업은 기술자료 요청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사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CASE STUDY

최신 판결분석

물대 인상 절차 어겼어도 묵시적 동의 있으면 무효 아냐...가맹계약 해석 기준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

“담합행위 전력만으로 특정 지역 예외 유지 안 돼” 재량행사 기준 제시한 법원의 판결

PROPOSED BILL

최신 시행·발의 법안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부과시 개정안 입법 예고

김승원 의원,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 대표 발의

DOMESTIC·INTERNATIONAL POLICY TRENDS

국내외 정책 동향

“QLED 광고도 소비자 기만”...독일 법원 TCL 광고 중단 판결, 기술 마케팅 리스크 유의해야

공정위 경인사무소 신설과 1분기 내 167명 증원...기업 공정거래 대응 환경 변화 전망

현대엔지니어링, 하도급대금 104억 원 미루다 공정위 나서자 지급해

INSIGHTS

언론 속 대륜

한국경제TV 등 8곳



법무법인 대륜,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전이 가시화된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수출기업들의 선제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를 출범했습니다.

경기일보



대륜, '2026 노동정책' 세미나 성료..."기업 인사·보상 전략 점검"

대륜은 서울 여의도 파크원 대륜 주사무소에서 주한외국 기업연합회(KOFA)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정책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기업의 인사·보상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로리더



명품 '리폼' 논쟁...상표권의 경계와 기업 대응 전략

대법원은 지난 2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2심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활용해 리폼 제품을 제작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CONTACT

최한식

최고총괄변호사 T. 070-7510-2012

신종수

최고총괄변호사 T. 070-7510-1046

윤경원

최고총괄변호사 T. 070-5117-3709

손계준

총괄변호사 T. 070-5117-3709

방인태

수석변호사 T. 070-7510-1822

지민희

선임변호사 T. 070-5221-3616